

전남 새정치 의원들 만찬 회동 선거구·호남 민심 논의 주목

오늘 11명 전원 참석 예정...공천 개혁안 등 이슈

주승용 최고위원직 복귀도...주 "심사숙고 중"

정치 하한기를 맞아 신당론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전남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문제와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 내년 국고 예산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19일 저녁 모임을 갖고 당 내의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만찬 회동에는 전남지역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난 12일 네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데 그친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전

남 국회의원들은 당 내의 현안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따로 성명은 내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비노 성향 의원들은 최근 신당론이 주춤하고 혁신위의 공천개혁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친노 및 주류 진영이 호남 민심을 오만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승용 의원의 수석 최고위원직 복귀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을 대표해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날 "시도당위원장들은 주승용 의원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고위원에 복귀할 것과, 지도부의 일원으로 서 계파 청산, 공천 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

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난감한 처지다.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의 복귀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노 진영 일각에서도 지도부에 복귀,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 사퇴 명분이었던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빈손 복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의 공천개혁안이 제시된 이후에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이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 조만간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DJ서거 6주기 추도식... "남북 화해 힘 모아야"

정치권 총출동에 긴장감도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야권 재편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은 물론 신당 추진 인사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지도부는 물론 비주류 진영의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원로인 권노갑, 문희상, 이해찬, 임재정 상임고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 이석천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한광옥 국민대 통합위원장 등의 모습도 보였다.

신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전정배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원외정당인 '민주당'에 소속된 김민석 전 의원, 탈당설이 이어지는 박주선 의원도 추도식장에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도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남북 화해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없었으면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경륜이 새삼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추도사에서 "영정 앞에 한없이 부끄럽다. 대통령이 열어놓은 한반도 평화의 길과 통일의 길이 안개 속에 갇혔기 때문"이라며 "하늘에서 지혜를 내려주시길 김 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만든 지도자이자 남북 화해의 길을 걸은 분"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남북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셨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없었으면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경륜이 새삼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추도사에서 "영정 앞에 한없이 부끄럽다. 대통령이 열어놓은 한반도 평화의 길과 통일의 길이 안개 속에 갇혔기 때문"이라며 "하늘에서 지혜를 내려주시길 김 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정시한 다가오는데 선거구획정 '오리무중'

공천·선거제도 여야 기싸움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가 선거구획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독립적으로 획정 기준을 다룰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한 시한(8월13일)을 넘긴 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늘까지 확정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0월 13일) 준수 수를 위해 자체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3주 만에 전체회의와 선거법소위를 재개해 선거구 획정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는 20일에도 선거법 소위를 다시 열어 접점 찾

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4일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대로 유지했다. 또 도시 및 농어촌의 선거구 분할 기준과 같은 대원칙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정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각각 공천, 선거제도라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박달'이라는 이름으로 엮이면서 여야간 기싸움 양상마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결론 도출은 난항해 보인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줄세우기식" 구대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보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모든 정당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死票)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왔으나, 새누리당은 결국 의원정수 증가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도 도입에 실익이 없으며 부정적이다.

대안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고정하고 지역별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일부식 병립형', 지역별 득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증감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나왔지만 논의는 결렬되고 있다.

양측 모두 각자의 명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여당은 청와대의 공천권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속내가, 야당은 불보지인 영남권을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숨은 전략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온지

황주홍, 군인 토익시험 비용 지원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현역 군인이 토익·토플·토픽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용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기준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으로 토익(4만2000원), 토익 스피킹(7만7000원), 토플(3만6000원), 토플(약 20만원)에 달하는 응시료는 군인에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징병제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이들의 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지역 현안사업 국비반영 동분서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기재부를 찾아 방규근 2차관 등과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하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 조속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1000억원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200억원 ▲전원일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25억원 등 전남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또 ▲영광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 구축 90억원 ▲디자인 융합 마이크로-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구축 140억원 원을 건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 **회원전용신용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 **감정가대비 70%**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합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